

## 광주·전남·전북, 경제동맹으로 '호남권 메가시티' 띄운다

제12회 호남권 정책협의회, 7년 만에 전북 정읍서 열려  
광역SOC·산업 등 경제분야 중심 호남권 상호협력 다짐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전북지사가 민선 8기 들어 첫 만남을 갖고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맺기로 합의하면서 실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들 3개 시·도 지사는 우선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호남 RE100메가시티·호남 관광문화 주간 사업부터 공동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는 4일 전북 정읍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제12회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번 호남권 정책협의회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존처럼 형식적으로 협력과제를 발굴·보고하는 방식이 아닌 경제·산업분야만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사업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 등이 나온다.

이날 3개 시·도 지사가 서명한 선언문은 광주, 전남, 전북이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선언문 첫 항은 '3개 시·도는 경제동맹의 근간이 되는 기반 시설 확대를 위해 고속도로망 및 철도망 확충, 고속열차 증편 등 초광역 교통망 확충에 공동으로 협력한다'이다.

다음 항은 '경제동맹의 핵심 분야인 산업간 협력을 위해 재생에너지·이차전지·바이오·모빌리티 등 초광역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의 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이며, 세 번째 항은 '지방소멸 및 지방재정 위기 극복에 공동 노력하고 동학농민혁명 선양 및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호남권 정체성 확립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네 번째 항에는 '기존보다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를, 선언문 마지막 항은 '위 4가지 항목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법 제·개정 등 입법 및 국가 예산 확보에 공동 노력한다'로 마무리했다.

또 3개 시·도 지사는 비공개 세부논의를 통해 '전남 고흥-광주-전주-세종을 거치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조성', '재생에너지 공동 생산·활용, 분산에너지 확산, 공동연구,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 협력', '2025년부터 호남 관광문화 주간 공동 개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선언 실현을 위한 각 시·도별 실무협의체(기획조정실장단장) 구성' 등에도 합의했다.

3개 시·도는 이번 경제동맹 공동협력 사업 합의에 따라 초광역 도로망 확충의 경우 노선 중복으로 차량정체가 심화하고 고속도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교통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호남권 고속도로 남북 2축(영암~광주), 3축(담양~전주·고흥~광주), 4축(세종~완주·여수~순천)의 지·정체 구간을 정비하고, 수도권 등 타 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초광역 산업 협력도 이차전지와 에너지 R&D, 지능형 농생명 분야의 협력 벨트를 3개 시·도가 각각 나눠 구축하는 방향으로 검토된다.

그동안 행정통합보다는 경제통합 중심의 메가시티 조성을 주장해온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전체 발언에서 "국가균형발전은 발전전략을 넘어 생존 전략으로, 수도권 1극체계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면서 "지자체간 경계를 넘어 수도권과 경쟁·발전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광주·전남·전북이 대한민국 초광역협력의 성공모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지 30년이 되어가지만 지방은 여전히 충분한 자치권을 확보하지 못해 지방소멸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며 "초광역SOC, 에너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역사문화 자원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호남권 광벨트를 조성하는 등 공동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내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 초광역자치단체간 연합이 필요하다"며 "역사적, 문화적으로 맞닿아 있는 호남권이 좀 더 경제분야에 집중하고,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보완해 모두가 상생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왼쪽부터)과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가 4일 전북 정읍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제12회 호남권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선언문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환경부장관 김완섭·방통위원장 이진숙·금융위원장 김병환

윤 대통령 지명, 차관급 6명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호로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MBC에서 사회부·국제부·문화부 기자와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김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호로 행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8월 기재부 1차관으로 발탁됐다.

윤 대통령은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

다.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또 농촌진흥청장에 관재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임상섭 산림청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김재홍 국립대 교수를 임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전남의 6월, 한여름보다 뜨거웠다

최고 37.2도...52년만에 가장 높아

광주·전남지역 6월 평균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5일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에 30~80mm의 비가 내린 뒤 잠시 소강상태에 들겠다"고 4일 예보했다.

5일과 6일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일부

지역에선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었다.

장맛비는 6일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갔다가 비가 그치면 기온이 다시 오르는 날씨가 반복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오라까락한 장맛비가 태양열에 달아오른 광주·전남 지표면을 충분히 식혀주지 못해 광주·전남 올해 6월이 역대 가장 덥고, 폭염 일수도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6월 기후 분석 결과'를

보면 광주·전남 6월 평균기온은 22.7도로 평년 대비 1.2도 높았다. 이는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52년만에 가장 높은 기록이다.

지난달 19일엔 광주와 전남의 낮 최고기온이 37.2도를 기록하면서 66년 만에 6월 일 최고기온은 극값을 경신했다. 완도(34.2도)와 해남(33.5도) 역시 각각 18일과 19일 일 최고기온 극값을 갈아치웠다.

평균 폭염 발생일도 역대 가장 많아 지난달 1.1일로 평년 수준인 0.1일을 크게 넘어섰다. 광주는 3일간 폭염이 발생했고, 고흥은 2일, 완도·장흥·해남은 1일의 폭염이 발생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민주인권 보조금사업 일부 폐지 검토 논란 ▶6면

복스 - '조선과 서양의 풍속화' '노마드' ▶14·15면

파리올림픽 - 태권도 중주국 자존심 세운다 ▶18면

###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의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읍·면·동에 사전 문의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기준

**사용안내**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전기만 가능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1) 요금차감은 '25년 5월 25일까지 청구(작성)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지원  
2)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25년 5월 25일까지 카드결제완료 필요

**바우처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 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1) 위 금액은 2024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액 아님  
2)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볼 수 있음 (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3)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4) 국민행복카드도 등유, LPG, 연탄 구매 시 배달료 포함하여 결제 가능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홈페이지 www.energyv.or.kr